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정리말씀1(편집본)

또 반가운 새벽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세계의 각 나라, 각 민족, 모두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 주관권.

인생! 세상에서는 무엇만 배우는고 하니, ‘사람’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더 급한 것은 우선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만 먼저 배웁니다. 보이는 세계만.

그래서 자기를 잘 모른다. 우선 보는 것을 먼저 배우고, 우선 듣는 것 먼저 기억하니까, 외부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런데 외부 것 먼저 배우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잘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그릇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만들고 세상을 접해야 하는데, 자기를 안 만들고 세상을 접하니까 세상이 생긴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게 생겼으면 험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겼으면 이상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정신, 사상에 의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항상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에 대해서 배우고,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선 보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깊은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낮은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다. 세상의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고, 신령한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바울 선생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이니까. 먼저는 육 인체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를 알고, 자기만큼의 수준에 맞추어서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 살 안에 있는 가정국의 자녀들을 귀하게 잘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섯 살 때 가르칠 것 따로 있고, 일곱 살 때 가르칠 것 따로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봤다는 것. 민족의 배경이 안 좋으면 안 좋게 성장합니다.

선생은 산골짜 월명동에서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잖아요. 만화가게 도 없고, 그리고 술집도 없고, 그리고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산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환경, 배경!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고, 어렸을 때 영화 좋아하던 사람들은 커서도 그것을 못 버립니다. 10대 때도 대개 그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음식 체질 된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는 것이 체질 된 사람은 꼭 봅니다. 커서도 꼭 그러합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면서 고쳐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는 기도고 자기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격을 받게 되고, 형제들 성격도 받게 되고, 환경의 성격도 받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대로 성장합니다.

10대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난 것을 막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보고 싶습니다.

나는 10대가 됐을 때도 특별히 볼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권이 아니니까. 시골권이니까.

월명동에서 성황당, 거기로만 갔다 왔습니다. 산길로만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산에 가서 거기만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만 갔다가 조금 돌아다니다 오고. 그것밖에 볼 것이 없었습니다. 10대 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기인 17, 18, 19부터는 돌아다녔습니다. 금산도 갔다 오고, 대전도 갔다 오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도시를 처음으로 보고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놀래 죽을까 봐 걱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우리 집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못 하는 집을 짓고 사는 이런 것을 너무 너무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10대 때’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닮아지지 않고, 이것저것 분별치 못하고 있는데, 외국 문화권이 짙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외국 문화권을 받아들입니다.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갑자기 받아들이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많이 고치고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란다. 안 고치면 너, 결국 흑암으로 간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잘못된 대가로 고통 받는 것이다.” 하니까 많이 고쳐졌습니다. 안 고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너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지요?

그렇듯이 “너희 못된 성격과 성질, 버릇 고치면 천국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치면 천국입니다. 내가 해 봤으니까 내가 압니다. 자기마다 다 있으니까 한번 고쳐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습관과 버릇과 잘못된 것은 자기가 알지, 누가 압니까? 옆의 사람도 알기는 알지만 자기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자기의 나쁜 성격이, 부딪혀 보니까 “재 있잖아, 너무 너무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아주 못 맞추겠다. 너무나 무섭다.”

“성격 고치고, 나쁜 버릇 고치면 참 편하다. 너무 좋다. 계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격 고치고 버릇 고치고, 이런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게으른 버릇, 나쁜 버릇, 시기 질투하는 버릇, 남을 무시하는 버릇, 말 함부로 하는 버릇, 그리고 지켜야 될 비밀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지를 모릅니다.

섭리 권에 치명적인 문제, 선생님께 치명적인 문제...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막 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제의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절제하라! ‘절제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늘에 흥미를 느끼고 인생을 부지런히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일생 100동안 살아봤자 그까짓 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시간 40분 남짓한 그런 시간들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인생의 삶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리듬이 깨지는 삶의 세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민족성, 자기 배경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신 차리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대들 그런 데에 눈을 뜨지 말고, 흥미 위주로 눈뜨지 말고, 이성세계에 눈뜨지 말고! 알겠어요?

열심히, 의롭게, 온전하게 살면 잘 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되든지 못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이니까 잘되는 길로 계속 시간을 써야지, 못 되는 길로 시간을 쓰고 왔다가 잘되는 길을 늦게 발견했을 때는 얼마 못 가보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된다.”

여러분들, 성격 고쳐놓고 모든 일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태평세월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완벽하게 100% 하고 살아봐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10대의 여러분은 잘 해요. 막 문화권 받아들이지 마요. 하늘 문화권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선생이 가르치는 문화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중심인물은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복을 받고 살게끔 자기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했고, 영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신세계를 안 배우면 안 되듯이. 안 배운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안 배운 상태에서 문화권을 접하니깐 다 타락 문화권으로 흘러가 버리고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보고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망가트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화권을 배워서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평강, 의, 공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내가 빈 평안이 이들에게 영원하고 충만할지어다. 아멘.

자, 말씀 마쳤어요, 안녕~ 네.